

“공부바람이 꽃바람보다 향기롭죠”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 매일 특강... 불자들 신바람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꽃바람 보다 먼저 공부바람이 불었다.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이 바람의 진원지다. 강원 학인스님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수행을 유지하는 일도 만만찮은데 매일 재가자들의 공부를 지도한다.

월요일에는 <금강경> 특강(동화사 설법전 오후 2시), 화요일에는 '유식' 강의(동화사 설법전 오후 1시)를 진행한다. 수요일에는 '다선(茶禪)'(동화사 심검당 오전 10시), 목요일에는 '달라이라마반야심경' 특강(지산동 지산선원 오후 7시)과 대구불교방송의 '자비수관 강의(오후 4시 10분 방송)'로 불자들을 만난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에는 능인고등학교 법당에서 교사들을 위한 '티베트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는 지운 스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매주 일요일 <육조단경> 강의(동화사 심검당 오후 3시)를 하고 첫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해심밀경>을 강의(동화사 설법전 오후 7시)를 이끈다.

3월 20일 오후 2시 <금강경> 특강 현장. 5번째 강의다. 처음 30여 명이 불과하던 수강생이 100명을 넘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이 "혼자 듣기 어렵다"고 주변사람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는 수보리 장로가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에서 시작했다.

“왜 수보리장로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을까요? 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운 스님의 차분한 강의는 뜻풀이에 머물지 않는다. 시공을 건너뛰어 부처님회상으로 돌아가 <금강경>이 설해진 순간의 상황을 재현하며 재가불자들이 알기 쉽게 숨은 뜻을 풀어낸다. 부처님회상에서 침묵(말과 생각이 떠난 자리, 공의 자리)은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며 공을 말하고, 공을 제일 잘 아는 해공제일 수보리장로이기에 대중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풍요를 알고 대중을 대신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송광사에서 10년 이상 강주 소임을 역임한 지운 스님의 특강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1시간동안 이어졌다. 법회가 끝나자 수강생들은 심검당에 있는 스님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뜻다한 질문을 쏟아 놓았다.

“바쁘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바쁘지 않다”는 지운 스님은 “방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강의가 이렇게 됐다”며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길 기대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화합 다지는 행복의 함성

대구 경북 불교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회

행복의 함성 시작! 와! ~ 3월 18일 대구시민체육관이 대구 경북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의 함성과 웃음으로 들쭉거렸다. 대구 경북 불교사회복지기관시설연합회(회장 성용)가 불교계 복지기관과 시설단체 종사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 것. 2002년 3월 1박2일의 산사체험을 겸한 직지사 연수 이후 두번째 만남이다.

연수회는 상주병림사회복지관장인 성용 스님(직지사 주지)과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진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대표 지도, 사회복지법인 열림가람 대표 난승, 영주시장애인종

는 경이다. 4인5각 달리기는 돌연 12인 13각으로 돌변했다. 다리가 많아 움직일 수 있을까만 난승, 지도, 진오 스님까지 가세한 상태에서 반환점을 돌아와 화합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두 팀의 응원전도 하늘을 찌른다. 물통에 모래를 채운 즉석 응원도구가 등장하고,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끼'를 발산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화합. 열심히 뛰고 웃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해 복지시설이용자들에게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만큼 대구 경북 불교계 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은 하루

하나되어 즐거움과 정보 공유한 의미깊은 하루

뛰고 웃고 신심 다지며 질높은 서비스 다짐

함복기관장 도윤 스님을 비롯한 약 30여 명의 불교계 복지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행사, 2부 명랑운동회로 진행됐다.

이벤트팀 '놀레벤트'가 특별히 준비한 명랑운동회는 꼭지점 댄스로 가쁜히 시작했다. 대구, 포항, 경주가 복지팀, 경주 포항을 제외한 경북 전 지역이 나눔으로 나눠지고, 열띤 응원 속에 한마음풍선 만들기, 응수철릴레이, 지구공대전, 4인5각 발뮤어 달리기, 깃발서바이벌 등의 명랑경기가 이어졌다.

지구공대전은 행사에 참가한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마음만큼이나 동그렇게 부푼 대형지구공을 6명이 안고 돌아오

종일 뛰고 웃는 가운데 큰 하나가 되어 행복의 함성을 내걸었다. 나를 비운 자리에 자비의 마음 가득 채워 시설이용자들에게 전하리라 마음먹으며.

사회복지법인 열림가람 김중순(32)씨는 “시설이용자들을 위해 늘 프로그램을 이용하니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며 “이런 기쁜 마음으로 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원주지역연합회 산하 수성구자활후견기관 문지윤 과장은 “종사자들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3월 18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구 경북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연수회.

“손님을 부처님처럼 모실게요”



운불련 대구지회 창립20주년 소년소녀가장에 성금 전달도

불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우수회원회 대한 표창,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성금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용 회장은 대화사를 통해 “조발심을 잃지 않고 20년이란 세월을 걸어오면서 최고의 호출택사로 우뚝 서게 된 회원이여러분의 노고와 지역불교계의 성원이 컸다”며 “앞으로도 굳센 원력과 굴하지 않는 정진력으로 작은 사람을 실천하고 아름다운인간관계를 꽃피워 손님을 부처님처럼 모시는 운불련이 되겠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 출범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불자들의 모임인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회장 김용태·능인중 교장)이 3월 18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도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1월 발기모임을 가진 후 정식 출범하는 대구불교교육지도자모임은 조직을 정비해 조만간 삼보사찰을 중심으로 108사찰순례를 떠날 계획이며, 파라미터의 저변확대 등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역 초·중·고교장 30여명과 교감 10여명 교육전문직 불자 1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배지선 기자

아동학대예방 연중 캠페인

“아이들을 지키는 작은 실천, 신고전화 1391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소장 서현)이 한국도로공사 후원으로 3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구미와 김천, 상주 군위 톨게이트 및 칠곡 상·하 휴게소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연중 캠페인을 펼친다.

3월 23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구미 톨게이트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아동학대 사례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9교구 전진순회법회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지역불교지도자 및 신도인원 전진전국순회법회가 4월 1일 11시부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주최하고 중앙신도회와 제9교구포교국, 9교구 및 대구광역시 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06년 신도단체 임원 재교육 일환으로 마련됐다.

배지선 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바로자나 부

처님과 함께하는 제46회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4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봉행한다.

조선대조 7년(1398년) 팔만대장경을 강화도 선원사에서 해인사로 이전할 때 많은 신도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기던 유래를 기념하여 정대불사는 4월 6일 오후 4시에 입재해 밤새 종진 무관종목 스님의 법문과 천도제로 이어지고, 7일 오전 8시에 폐불봉안 후 정대법회를 봉행한다. (055) 934-3000 배지선 기자

컴퓨터 교실·미술나라 운영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윤)은 지역장애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교실을 마련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컴퓨터 기초, 파워포인트 과정은 4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주2회 2시간동안 진행되며, 워드프로세서 홈페이지과정은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마다 강의한다. 대상은 장애인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정원은 각 과정 10명, 접수마감은 3월 31일 오후 5시까지다. (054) 633-6415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혜명복지원 개원 60주년 기념

禪 선 서 화 전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은 오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2전시실에서 개원 60주년 기념 청소년 가장돕기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월하 스님, 석주스님, 중광스님 등 고승대덕스님들의 작품을 비롯해 국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일시 : 불기 2550(2006)년 4월 5일 ~ 11일까지 ☼장소 : 세종문화회관 신관 제1·2전시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 ☎ 806-137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드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문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대칼라지붕공사